



東國大學校 建築科長 吉正天 教授
工科大學

對談：編輯者

[1]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…?

[답] 건축공학 교육제도 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경제적 빈곤과 문화수준의 후진성이라 생각한다.

따라서 국민전체의 경제수준과 아울러 문화수준이 향상될 것을 바랄 뿐이다.

[2] 우리나라 건축양상에 대한 소감을…?

[답] 일반적으로 내용적 건축이 아니고 형식적 건축이라 느껴진다. 즉 외면의 미려함에 비해 내부치장 설비가 미약하고, 특히 건물의 기능도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것 같다.

[3] 한국 건축문화의 가치관 확립에 대한 방안은…?

[답] 선진국에서는 해상도시 건축, 공중도시 건축을 꿈꾸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같은 것

은 아직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.

그렇다고 Roman style 건축이나 Gothic 건축은 발달된 현대문화 사회에 동화되기 힘들 것 같고, 한국적 전통을 살리자니 너무도 발전범주가 좁고, 고압적인 감이 든다.

그저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건축을 우리 자신이 착실하게 건축해 나가노라면 우리의 건축문화의 가치가 확립되리라 본다.

실지에 있어서 어떤 분야이건 그 문화의 가치는 오랜 역사의 바탕이 있어야만 한다.

그런데 우리의 건축역사는 불교건축을 제외하고는 그 문화의 가치를 논할 만큼 긴 것은 아니다. 이런 뜻에서 앞으로의 건축은 30~50년 정도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도록 함과 동시에 100年 大系를 위한 “고가건축”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.

다시 말해서 아랫층은 모두 교통망을 생각하여 Span을 넓히고 기둥높이도 높게 하여 훗날에 1층은 주차와 교통용지로서 쓸 수 있게끔 기둥만 남기고 허려버려도 될 수 있게 하고 2층 이상이 건축용도로 쓰이는 “준고가건축”을 설계하여 역사적인 건축물을 남겨 주는 것이 우리의 건축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.